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9일 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(044-203-5620), 이보라 사무관(044-203-5623)

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(TBT) 일괄 지원 체계 구축 등 통상현안 논의

-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4.9일(수) 10:00, 정부서울청사(19층 영상회의실)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**'제2차 통상추진위원회'**를 개최함

○ 통상추진위원회는 「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에 따라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임

○ 이번 회의에서는 ① **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체계 개편**, ② **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**, ③ **한-중 FTA 협상 대응방안**, ④ **한-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** 등을 논의함

<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체계 개편 >

□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수단의 하나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,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체계 개편방안'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논의함

*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이란,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·표준·인증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

* TBT 통보건수는 WTO 출범 이래 지속 증가하여 '13년 사상 최고치(1,626건)를 기록, 특히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확대 추세임('12년 1,242건, 전체의 80%)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.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'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'을 구성하여,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, 대응전략 마련까지 全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,

* 업종별 단체는 업계 의견수렴을, 전문기관은 기술규제의 타당성과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의 심층 분석을, KOTRA는 정보입수와 대외협력을 담당키로 함

○ 또한,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 발굴하고,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'일괄 지원 체계'*를 운영하는 한편,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하여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임

* 시험연구기관(KEA, KTR, KTC 등)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,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

< 복수국간 서비스협상(TISA) 동향 >

□ '13.6월 출범한 '복수국간 서비스협정*(Trade In Services Agreement)'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, 동 협상 참여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함

*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는 약 7.2조 달러('10년)이며,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참여국(23개)은 전체의 약 70%를 차지함

* 금년 중 총 5차례 협상(2·4·6·9·11월)을 개최하여, 규범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

○ 정부는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,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

< 한-중 FTA 협상 대응방안 >

□ 한-중 FTA는 분야별 협상지침(모델리티)을 마련한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이후, '13.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되어 지난 달 제10차 협상('14.3.17~21, 고양)까지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이 진행 중임

○ 현재 한-중 양국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, 관계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

□ 한진현 차관은 "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, 일자리 창출 등의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"를 당부함

<붙임> 1.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1부
2. 해외 기술규제(TBT) 대응 성공 사례 1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보라 사무관(☎ 044-203-56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계획

□ **회의 개요**

○ 목 적 :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개편 논의 및 한-중 FTA 협상,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등 주요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

* 근거 : 「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 제3조
* 심의 사항 : 통상교섭의 기본방향·추진전략,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, 통상조약 협상안,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·보완대책, 산업자원협력 등

○ 일 시 : '14. 4. 9일(수) 10:00~11:30

○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***2차관님(주재) 서울청사 참석**
정부세종청사 12동 5층 영상회의실(509호)

○ 참석자 : **(주재)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, (위원)** 기재부·미래부·외교부·농식품부 차관, 중기청·관세청장 등 20여명

○ 안 건 : 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개편
② 복수국간 서비스협상(TISA) 동향 보고
③ 한-중 FTA 협상 대응방안
④ 한-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(안)

□ **세부 계획(안)**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10 (10')	개회 및 모두말씀	
10:10~10:30 (20')	제1호 안건 보고 및 토론	
10:30~10:50 (20')	제2호 안건 보고 및 토론	
10:50~11:10 (20')	제3호 안건 보고 및 토론	
11:10~11:25 (15')	제4호 안건 보고 및 토론	
11:25~11:30 (5')	마무리말씀	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2 해외 기술규제(TBT) 대응 성공 사례

1 인도 전자제품 안전 규제

○ (개요)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도입을 발표('12.10)했으나, 시험소 부족으로 시행일('13.4)까지, 기업의 인증획득이 어려움

* 규제 대상 : TV, 모니터, 컴퓨터, 셋톱박스 등 15개 제품

○ (결과) 인도 규제기관 방문('13.2), WTO TBT 위원회('13.3)를 통해 시행 연기를 요청하였고, 인도는 규제 시행을 '14.1월로 연기

2 EU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

○ (개요) 냉장고,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따라, 기업은 제조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 발생('13.2)

* 냉매가스를 충전하여 제품을 출하하나, 동 규제가 시행되면 가스회수 공정을 추가해야 하며 회수과정에서 제품 성능저하도 발생

○ (결과) WTO TBT 위원회('13.6, '13.11), 한-EU FTA('13.9) 등을 통해 관련 규제의 철회를 요청하였고, EU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('14.1)

3 에콰도르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규제

○ (개요) 에어컨,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시행('14.1)하나 짧은 시행유예기간, 시험소 부족 등으로 기업의 인증획득이 어려움

* 준비기간(2개월)도 부족하고, 현재 시험소(멕시코)도 1곳에 불과

○ (결과) 에콰도르 규제기관을 방문('13.12),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통용을 요청하였고, 에콰도르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

4 브라질 냉장고 기술규제

○ (개요) 물 급수 기능이 있는 제품(냉장고 등)에 대한 안전, 에너지 효율 규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, 냉장고에 중복규제가 적용됨

* 냉장고는 이미 전기안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

○ (결과) WTO TBT위원회('13.11), 브라질 방문('13.12)을 통해 중복 규제 철회를 요청, 브라질은 이를 수용해 냉장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('13.12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